

제주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정 재 영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해외 직접투자기업의 경제적 효과

IMF한파로 전 국민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매일을 보내고 있다. 외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은 수출을 많이하고 수입을 적게하여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길과 외국인의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간접투자과 직접투자 두가지가 있다. 간접투자는 우리나라의 주식 등을 사기위해 외자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며, 직접투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활동을 하기위한 투자가 그것이다. 간접투자가 되었던 직접투자가 되었던, 외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같으나,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판이하게 다르다. 직접투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고용증대, 세금증대, 수출증대 또는 수입대체, 기술이전, 경쟁촉진,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 지역사회발전에의 공헌등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추가적인 외채부담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어 더욱 좋다. 따라서 IMF체제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야말로 외환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외국투자 기업이 무조건 한국경제에 도움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외환의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외국의 투자기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2.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90년대초 정체를 보인후 94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1997년 11월말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52.2%, 서비스업에 대

한 투자비중이 47.2%이며, 지난 3년내지 4년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9%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일본(24.6%), 네덜란드(9.4%), 말레이시아(6.9%), 아일랜드(4.2%), 독일(4.2%), 영국(3.0%) 등의 순서이다. 80년대말까지 일본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45%를 차지하였으나, 94년이후 크게 감소하여 96년에는 총 외국인투자의 7.9%, 97년에는 4.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말레이시아, 아일랜드로 부터의 투자는 96년이후 급증한 것은 역외펀드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진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현재 2.35%에 불과하여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대만이나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2.35%는 선진국의 9.1% 수준이나 아시아 개도국의 15.1%에는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3.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은 지극히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예로 Far Eastern Economic Review(1997년 8월 7일)가 3,000명의 아시아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997년도 한국의 투자환경은 아시아 18개국중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의 다음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 한국정부는 47개국중 36위의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의 경우는 43위였었다. 많은 연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정부규제의 불투명성과 과다함 그리고 행정편의주의, 조세, 지적재산권 보호, 번거로운 통관 및 무역제한 조치, 기업의 합병 인수(M&A)의 제한등 시장접근상의 제약과 부패 및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인식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불평을 보면 정부규제의 투명성, 행정편의주의, 현실성 없는 법률등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과거의 한가지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투지가 격은 공시지가가 정해지고 지역내 토지의 모든 거래는 지가의 120%이상의 거래는 안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세대로 신고를 하면 거래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무리하여 거래를 하면 탈세의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법의 현실성이 없고 위반시 국내기업 보다는 외국기업에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 외국기업의 불만이다. 가장 최근의 예로 다우코닝사가 28억달러짜리의 대형 직접투자를 한국에 하지않고 말레이시아로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정부차원 홍보와 세일

스 마인드 부재를 들고 있다. 특히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제약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대형 외국인 투자 한건만을 위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4.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규제완화로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사·정 합의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정부기능을 인허가 중심의 통제적 기능에서 사후감독 및 지원중심으로 전환하고, 또한 적대적 M&A의 인정, 투자제한 업종제한을 축소하고, 무역제한 조치도 빠른 시일내에 철폐하여야 하고, 민영화에 외국인 기업의 참가등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입안, 투자유치 및 홍보, 윈스톱서비스, 사후관리 등을 통합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는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 관련업무를 일괄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 못지않게 외국기업을 보는 국민인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외국기업은 우리를 착취해가는 외국기업을 보는 국민인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외국기업은 우리를 착취해가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공생관계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1세기는 공생의 시대이다. 인간과 자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등이 공생하여야 하는 시대이다.

5. 외국인투자 유망 업종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적지않은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유치 가능한 산업으로 컨벤션 산업,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서의 생명공학 산업, 관광 레저산업, 금융서비스 산업 등을 들고 있다. 동시에 97년도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 스스로 제주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우수인재의 부족(22.4%), 우수교육기관의 부족(17.6%), 도내 자본부족(15.2%), 지도층 지도력 부족(13.8%), 정책개발/행정능력 부족(11.1%), 정보화수준의 낙후(9.5%) 등을 들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해결에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잊어서 안되는 것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제주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곳이 세계도처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다. 간단한 예로 한국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왜 제주도에선 적은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외국기업에게 무엇을 하여주어야 제주도에 투자를 해 줄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인에 앞서 한국기업이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한국기업조차 투자를 기피하는 곳이라면 외국기업은 더더구나 투자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6. 기업 국제화의 제유형

기업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기업생존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경영환경이 생소한 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왜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로 시장지향적 투자가 있다. 현지국시장의 성장이 좋아서 하는 투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한 투자도 있을 수 있다. 둘째로는 생산효율지향형이다. 임금, 토지 등 생산요소 비용이 저렴하여 투자하는 경우이다. 셋째로 원재료 지향형 투자이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다. 넷째로 지식지향형 투자이다. 기술습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이다. 외국기업의 유치에 앞서 역으로 제주도에 어떤 목적을 갖은 외국기업이 직접투자를 하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방법이다.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투자의 위험없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경쟁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할 것이다. 둘째로 프랜차이즈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햄버거나 피자집과 같은 형태의 외국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셋째로 마케팅협약을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마케팅 분야에의 협력을 함으로서 한국에 진출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넷째로 공동연구개발이다. 한국기업과 외국기업간에 특정목적의 연구를 같이 힘을 모아 하는 형태의 진출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로 국제경영계약(International Management Contract) 형태의 진출이다.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진출을 의미한다. 여섯째로 턴키 프로젝트 형태의 진출이다. 어떤 특수한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형태의 해외진출이다. 프로젝트가 완성됨과 함께 컨소시엄은 해소되던지 일부가 국제경영계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곱째 공동생산 계약이다. 하나의

제품을 서로 일정부분을 나누어 생산함으로써 국제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여덟째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이다. 이 경우 100% 단독투자와 100%이하의 합작투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단독투자건 합작투자건간에 신규건설, 기존 기업의 합병 및 인수(M&A)방식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에서 외화가 필요하여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만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외자를 가져오지 않는다하더라도 제품수출을 한다던지 수입대체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한다던지하면 외자를 가져온 기업과 하등의 차이 없이 우리 국제수지 개선에 공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외국기업 직접투자 유치 방안

기업이 자국내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물며 해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제주도에 투자할 기업은 외국기업으로서 갖는 불이익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경쟁상 우위요소가 있을 때 비로소 직접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술이나 경영상의 노하우를 갖춘 중견 기업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중규모 이상의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는 우선 Fortune 500대기업 또는 1,000대기업들에 관한 연구를 하여 집중적으로 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기업에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흔히들 벤처기업의 유치를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벤처기업이 본격적으로 고용증대, 세수증가, 지역사회발전 등에 의미있는 보탬을 주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접근방법은 기왕에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확장을 제주도로 유인하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한국내에서 사업확장의 기회를 직접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한국에 출자한 기업들의 확장투자를 제주도로 유치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제주도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지역의 투자보다 기업측에 유리하다는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될 것이다.

외국기업을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한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도 외국인 투자에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One Stop Service, 각종 지방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며, 투자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주는 등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좋으나 그보다는 제주도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여 국경이나 거리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동경에 본사를 가진 반도체 기업들이 제품을 비행기와 같은 수송수단을 활용하여 쉽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고시마와 같은 규슈지역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와 일본의 규슈와의 투자조건을 비교하여 제주도가 유리하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만 있다면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은 지역이나 거리 심지어는 국적조차 무시하여도 좋은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제주도는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교육수준이나 항만이나 공항시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기후조건도 유리한 곳임으로 업종에 따라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고 최근 홍콩의 반환으로 홍콩의 중장기적 위상에 불안을 갖는 국제금융회사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국제금융기업들은 홍콩보다는 안전한 지역에 베이스를 치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비즈니스를 하려하는 의도를 갖는 기업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종도의 구상을 제주도에서 먼저 실시할 수 있는 가증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가능하다면 일정지역에 투자자유지역을 설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주의하지 않으면 앓될 것은,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막는 것이다. 사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외국기업이던 국내기업이던간에 고용을 증대하고 세금을 많이 내주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다면 구태어 국내기업이던 국제기업이던간에 차별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외국기업의 유치에 있어 경제적 인센티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외국

기업을 보는 시각이다. 이제 제주시민들의 의식이 한국인 기업만이 우리기업이 아니라 제주도에 투자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우리기업이라 인식하여야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제주시민이 외국투자기업에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기업들 특히 한국에 투자해 있는 기업의 책임자들에게 확신시킬수만 있다면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